



## 오심 또 오심 누가 이기랴

### ■ 한국-스위스전 '주심 오프사이드 오판'

## “용서할 수 없는 일” 네티즌 분노 폭발

“16강의 꿈은 끝났지만 오심은 바로 잡자”

24일 한국대 스위스전에서 주심의 오프사이드 불인정에 항의하던 한국 네티즌들이 급기야는 재경기까지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몽준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거들고 나섰다.

### 비난 쇄도...FIFA 흠피 차단 정몽준 회장 “논란 여지있어”

이런 가운데 정몽준 회장이 25일 전날 스위스전의 심판 판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태극전사들을 환송하면서 “분명히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든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선수들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도 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과 스위스에 대해 오심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P통신은 “프라이의 두 번째 골은 분명히 선심의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간 뒤에 터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영국의 스카이스포츠도 “프라이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주심이 골로 인정했다”며 한국축구가 오심의 희생양이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역시 “주심은 부심의 오프사이드 판정을 목살한 것은 물론 스위스 수비의 핸들링 반칙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몇 차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이 스위스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한국 네티즌들의 불만도 거세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 “경기 후 24시간 안에 국제축구연맹(FIFA·피파)에 500만명의 국민이 항의 글을 쓰면 재경기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이 내용을 널리 퍼뜨려서 하루 빨리 재경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내용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단체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내용을 묻는 네티즌들의 접속 과부하로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와 피파 홈페이지 등이 한때 불통되기도 했다.

한국 네티즌의 홈페이지 항의 방문이 쇄도하자 FIFA측은 한국에서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스위스 관공청 홈페이지 등에도 ‘스위스가 심판을 매수했다’는 등의 항의 글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의 희망과는 달리 재경기는 불가능하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피파에 500만 명의 항의글과 관련된 재경기 규정은 없으며 재경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반면 스위스 언론은 23일 한국과의 경기 후반전에서 오프사이드로 의심되는 2번째 골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 오심의 희생양 됐다”

할 말을 잃었다. 안타까운 탄성만이 남았다.

독일 하노버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광주 월드컵 경기장 등 한반도 전역에서 목이 터질 것 같은 ‘대~한민국’의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건만 승리의 여신은 야속하게도 태극전사들의 편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운 23인의 전사들은 원없이 싸웠다. 그들의 투혼은 하노버 하늘 아래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게 빛났다. 4천만의 붉은 함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칠 줄 몰랐다.

그러나 승부는 승부였다. 2006년 6월 태극호의 운명은 안타까운 좌절을 맞았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4일(이하 한국시간) 하노버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축구 조별리그 G조 최종전 ‘알프스 전사’ 스위스와 운명을 건 결전에서 전반 23분 필리페 센데로스에게 통한의 결승골을 허용하고 후반 32분 알렉산더 프라이에게 석연찮은 추가골을 내줘 0-2로 분패했다. 같은 시간 필름에서 열린 프랑스-토고전에서 ‘늑은’ 프랑스가 토고를 2-0으로 눌렀다.

1승1무1패(승점 4)가 된 한국은 2승1무(승점 7)를 기록한 스위스, 1승2무(승점 5)가 된 스위스에 밀려 안타깝게도 16강이 겨룰 2라운드 문턱에서 물러났다.

### 오프사이드·핸들링 아르헨 주심이 목살 스위스에 0-2 분패

주심을 맡은 아르헨티나의 오라시오 엘리스온도 심판은 후반 프라이의 추가골 상황에서 부심이 분명히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골을 인정했다.

꺼림칙한 판정이 승부에 끼어들면서 태극호의 꿈은 무참하게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전면 공격대형으로 승부를 걸었다. 박주영-조재진-박지성을 스타톱(3-top)으로, 이천수를 새도 공격수로 놓는 사실상의 4-2-4 포메이션으로 초반부터 파상 공세를 펴는 전략을 썼다.

초반은 일진일퇴의 공방을 펼치던 한국은 전반 23분 안타까운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박주영이 얼떨결에 바르네타를 손으로 잡아 골대 경고를 받았고 야킨이 미드필더 우 중간에서 프리킥 찬스를 잡았다.

야킨의 왼발 프리킥은 날카롭게 휘어져 문전으로 향했다. 순간 공격에 가담한 스위

스 장신(190cm) 수비수 센데로스는 불쑥 뛰어올라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헤딩슛을 날렸다.

정확히 앞 이마에 명중한 볼은 이운재가 미처 손을 톰도 없이 한국 골문 오른쪽 상단에 꽂혔다.

후반들어 아드보카트 감독은 공격수를 5명으로 늘리는 모험을 감행했다.

후반 20분 박주영 대신 설기현을 투입한 한국은 후반 21분 조재진이 이천수의 크로스를 받아 찰기 헤딩으로 꽂았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석연찮은 추가골은 후반 32분에 나왔다.

수비를 굳히기 위해 투입된 스위스의 사비에 마르제라스가 미드필더 중앙에서 패스를 찰라찰라 프라이는 분명히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고 부심은 깃발을 들었다.

그러나 플레이는 계속됐고 프라이는 이운재와 1대1 맞선 뒤 한번 방어막을 편 골키퍼를 뚫고 들어가 추가골을 뽑았다.

한국 선수들이 달려가 항의했지만 주심은 판정을 반복하지 않았다.

아드보카트호는 골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후반 40분 김진규가 이호의 패스를 받아 때린 슛은 크로스바를 빙기고 나갔다. 골대까지 아드보카트호의 편이 아니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16강 경기 전망

#### 히딩크 마법 계속되나

▲이탈리아-호주(27일 0시·카이저슬러우테른)  
히딩크 감독과 이탈리아와의 인연은 특별하다.

지난 1966년 영국 대회 때 북한에 0-1 패배를 당해 8강행이 좌절됐던 이탈리아는 4년 전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과 16강 대결을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깨고 한국이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뛰던 안정환의 연장골든골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 당시 8강의 기록을 이뤘던 히딩크 감독은 이번에는 호주 사령탑으로 또 이탈리아와 마주했다.

호주는 강한 체력과 높은 우위를 발판 삼아 해리 쿨웰과 마크 비투카를 투입하며 내세워 이탈리아의 견고한 방패 허물기에 나선다.

이탈리아도 4년 전 한국전 퇴장으로 패배 빌미를 제공했던 프란체스코 토티가 ‘히딩크 악몽’을 털어내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자신하고 있다.

#### 셴첸코 삭발 투혼 기대

▲스위스-우크라이나(27일 4시·퀵론)  
골 사냥 시동이 걸린 ‘득점 기계’ 안드레 셴첸코(우크라이나)가 스위스의 방어막을 뚫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삭발 투혼을 발휘하며 H조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1골을 넣었던 셴첸코는 G조 조별리그에서 단 1점도 내주지 않은 스위스를 상대로 실수했던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맞서는 스위스는 철벽 수비진의 주축이었던 필리페 센데로스가 부상으로 남은 경기에 뛸 수 없어 비상이 걸렸다.

그럼에도 눈부신 선방으로 거미손 명성을 입증했던 골키퍼 파스칼 추베르필러가 버티고 있고 한국전에서 1골을 터뜨렸던 알렉산더 프라이도 공격의 선봉에서 우크라이나 문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요한 포엘로 트란클로 바르네타가 주축인 스위스의 미드필더진은 수비에 이은 빠른 공격 전환으로 우크라이나 골문을 흔들다는 복안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